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7.1.(수) 조간 배포 2026.6.30.(화) 10:00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합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 개최 및 추진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최종적인 **추진방안**을 **발표**

- **금융기관 상담 지점**을 **연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현재 21개소)하고, **찾아가는 재무상담사 119명**을 위촉·운영 → **연 10만건 이상**의 **상담** 가능
-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상담 지점**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확대**(현재 약 30%)

✓ **만 19세~34세 청년**들은 **7월 6일(월)부터** 상시적으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6일(목)부터 재무상담 제공**

【관련 국정과제】(82-3) 청년 등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89-3)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6.6.30.(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은행연합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권 기관**들과 청년 **재무상담사**, 재무상담 시범사업 참여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준비 현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3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6.30.(화) 10:00 /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기관)

○ (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등

○ (금융권) 금감원, 서금원, 은행연,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하나은행

○ (전문가 등) 금융산업공익재단, 찾아가는 재무상담사, 시범사업 참여 청년

■ **(논의사항)** : ❶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방안(금융위)
❷ 금융업권별 사업 운영방안 및 준비현황(서금원, 각 협회) 등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청년들에게 **금융**은 **수많은 기회와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과 **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며, **따라서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이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저축, 투자 등 금융의사결정**을 슬기롭게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도 전하였다. ❶청년들에게 **성실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며, ❷**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❸재무상담을 비롯해 **금융정책 전반**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긴밀한 소통창구**가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Ⅲ. 주요 논의 내용

1.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방안(금융위)

〈 1. 추진배경 〉

청년기는 **초기 자산**이 **형성되고,** 취업과 결혼 등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나**,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은 **전체 성인과 비교할 때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청년(20대) 62.6점 ↔ 전체 성인 65.7점

또한, **현재**의 **청년 금융이해력 제고 지원 정책**은 강의 등 **금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년이 직면한 **개별적인 재무문제**에 대해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청년 재무상담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현행 재무상담 사업은 ❶재무진단과 ❷재무상담으로 구성된다. 재무진단은 소득, 지출, 부채 등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홈페이지**에서 **청년 스스로 진단**이 **가능**하다.

재무상담은 **재무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따라 1:1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서금원·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산업공익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 4.6천명 규모**('25년 실적 기준)로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해 왔다.

※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상담 사례

▪ **소비·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20대 프리랜서 상담 사례**

-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강사로,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에게 의지하여 **소득·지출 전반** 상담 희망
- 재무관리의 시작은 **소비·지출 구조 점검·관리**임을 설명, **전반적인 소비·지출 관리 교육 진행**
- 소득 변동성을 고려해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 설명

▪ **주택담보대출로 상환부담이 큰 30대 직장인의 부채관리 상담 사례**

- 고민 없이 청약 받은 아파트의 **주담대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움**
- 피상담자와 함께 **대출조건**을 **재확인**하고 연령대별 **적정한 주거비 부담액** 수준과 **부채상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스스로 부채관리 필요성**을 느끼도록 상담 진행
-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변경 가능여부** 확인 및 **고정·변동 지출 점검**

하지만, **기존 사업**은 ❶**상담 제공 규모·시기·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❷청년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상담 내용·방식****이 **필**요하고, ❸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 간 연계 등 **통합적인 운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규모)** 연 4.6천명은 청년 인구의 약 0.05% 수준에 불과, **(시기)** 다수의 사업이 모집 기간을 두는 비상시적 형태로 운영, **(지역)** 상담 지점의 67%가 수도권 밀집

** **(내용)** 쌍방 소통을 바탕으로 청년별 다양한 재무적 관심과 지식수준 고려 필요
(방식) 대면 외에도 온라인 등 청년의 수요와 선호 반영 필요

〈 3.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세부 운영방안 〉

❶ 재무상담 제공을 대폭 확대

◆ [1]상담 제공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2]기존 사업의 시기적·지역적 제한을 해소하는 한편, [3]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

연 10만건 이상의 상담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담 지점을 기존 21개소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26년 7월 133개소*, 연내 200개소 이상으로 순차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가가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 상담지점 133개소 = (은행) 115개소 + (증권) 12개소 + (보험) 6개소

시기적·지역적 한계도 개선한다. 청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상시 운영한다. '찾아가는 재무상담'과 금융기관 상담 지점*도 비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 (비수도권 지점 비중) 기존약 30% 비중 → 개선47% / (참고) 비수도권 청년 비중 44.7%

한편, 저신용자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신용 또는 과도한 부채 등 재무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상담 과정에서 신용·부채 문제 해결 등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상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지원한다.

*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서금원), △채무조정 사전상담(신용회복위원회) 등

❷ 청년 친화적으로 상담의 질 개선

◆ [1]효과성·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 절차를 정비하고, [2]상담사 관리 및 [3]상담방식 다각화를 통해 상담의 질을 제고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재무진단 → 재무상담 신청 → 재무상담 → 사후상담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재무진단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금융기관 지점을 내방하거나 상담사가 청년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상담내용 이행과정에서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담 3~5주 후 유선으로 사후상담이 시행된다. 전 과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절차 >

❶ 재무진단(온라인)	➡	❷ 재무상담 신청	➡	❸ 재무상담	➡	❹ 사후상담
본인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상태 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원하는 유형과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재무상담 신청		기본적인 재무관리 방향 수립 지원, 필요시 재무문제 특화 상담 안내·연계		약 1달 후 유선 사후상담 실시

상담사는 **재무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청년기의 특성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심화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 **상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 한국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중 1개 이상 보유

한편, 우수한 **상담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우수한 상담사**에게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지원 실적을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포상금, 기관장 표창, 교육·연수 우선기회 부여, 인사가점 등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상담제공 방식**을 **다각화**한다. **전국적**으로 **119명**의 **재무상담사**를 **위촉**하여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재무상담**도 **운영**한다.

* (절차) 재무진단 → 재무상황·목표 등을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 등록 → 상담사가 재무진단 결과 및 등록 내용 확인 → 재무관리 방향 및 실천방안 등 답변

❸ 재무상담을 중심으로 청년 대표 금융종합 플랫폼 구축

◆ [1]**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 [2]**청년 관련 금융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3]**청년 재무생활 관련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기관들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서울 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지원**하여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적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6.22. 출시)' **우대금리 0.2%p**를 **제공**하고,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용**의 **필수 요건**으로 **재무상담**을 받도록 **지정**한다.

※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 미래이음 대출'

▸ **(청년미래적금)**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3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을 통해 만기시 최대 2,255만원(원금 1,800만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수령 가능하며, 이는 최대 연 19.4%의 단리 적금 가입효과와 동일

* (대상) 만19~34세 소득자年7,500만원↓ 또는 소상공인年매출3억원↓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만기) 최대 月50만원/3년, (기여금) 납입액의 6%일반형·12%우대형, (금리) 최대 8%

· **6.22일~7.3일까지 2주간** 14개 주요 은행 등의 **모바일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가입신청** 가능하며, 추후 가입심사(7.6~7.24) 후 **계좌개설** 및 **납입 가능**

▸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금융거래 부족(thin-filer) 등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미취업 또는 취·창업 1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의 상환능력보다 자금 용도*·상환의지에 중점을 둔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

* 창업 자금, 초기 정착자금 등

· 최대 5백만원 한도, 年 4.5% 금리로 거치 6년·상환 5년 최대 11년간 상환

청년이 재무생활 관련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7.6일~)한다. 청년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재무진단**과 **재무상담 신청**, **온라인 재무상담**, **금융 교육**, 청년 소통 채널 등 **금융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www.kinfa.or.kr/fill4young

2. 참석자/기관 발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홈페이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재무상담을 비롯해 **청년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와 **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사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시간적인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14개의 은행이 참여하여, 총 115개소의 지점에서 재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지점을 확대하고, 1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탄력·야간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의 지역적·시간적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과 여·수신 상품을 폭넓게 취급하는 점을 활용하여, 청년의 생애주기와 재무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상담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상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행별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투자협회는 6개의 증권사가 참여하여, 총 12개의 지점에서 재무상담을 제공하며,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지점을 연내 최대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전문성을 살려 청년이 필요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투자원칙 설계 등에 특화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상담 공간을 영업 창구와 분리 운영하여 상담의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상담 외에도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등 청년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대형 3사(삼성, 한화, 교보)가 참여하여, 서울·부산·광주·대전 4개 지역의 총 6개소 고객플라자에서 보험사 임직원이 재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에 특화된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전문성을 살려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 대상 교육사업도 확대 및 개편하여 재무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군장병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비수도권 청년에 특화하여 연간 2,000여명 규모로 재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자유토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재무상담 시범사업 참여 청년은 “단편적인 금융상품 추천이나 일회성 조언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재무관리 방향**과 **계획**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년 재무상담사는 상담 사례를 공유하면서, 재무상담은 **청년의 삶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재무문제**는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야간·주말 상담** 등 **청년의 편의성**을 고려한 **상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은행은 **현재**에도 **2개의 거점점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도 야간점포를 포함한 **12개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상담 지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취약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개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의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부위원장 마무리 말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1:1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금융교육**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언급하며,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금융**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희망과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재무상담이 **청년의 자산형성**과 든든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청년 정책금융상품**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의 시작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해 힘써주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Ⅳ. 향후 계획

금융위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홈페이지 구축**과 **상담사 교육 이수 현황** 등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한 후, 2026.7.16.(목)**부터** 청년들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2026.7.6.(월)부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홈페이지**에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상태인 청년은 동일한 절차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용 가능

** **(신청방법)** www.kinfa.or.kr/fill4young 접속 → 본인인증 후 온라인 재무진단 실시 → 재무상담 신청**(신청일 기준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에 대해 신청 가능)**

또한, 기존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민관 TF**를 **이행점검반**으로 **전환**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방안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689)
담당부서 <협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책임자	국 장	문재희	(02-3145-5970)
		담당자	팀 장	허수정	(02-3145-597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	책임자	본부장	최재학	(02-2128-8080)
		담당자	부 장	김미혜	(02-2128-8216)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고태호	(02-3705-5704)
	금융투자협회 홍보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억	(02-2003-9015)
		담당자	부 장	김동오	(02-2003-931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조성준	(02-2262-6689)
		담당자	부 장	김치국	(02-2262-6631)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최종수	(02-3702-8526)
		담당자	부 장	이용섭	(02-3702-8670)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기획팀	책임자	사무국장	박준범	(02-2039-5140)
		담당자	팀 장	이지윤	(02-2039-5186)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책임자	책임자	김영호	(02-2002-1251)
		담당자	부 장	장지완	(02-2002-12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안내**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재무진단부터 상담,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신청 홈페이지 | www.kinfa.or.kr/fill4young

STEP 01 재무진단

내 재무상태 확인하기

홈페이지 → '온라인 재무진단'

자동으로 불러오는 신용평가사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지출·부채 등 재무정보 입력

- 건전성·성장성지표 점검
- 개선 필요사항 제시
- 맞춤형 재무상담 추천

STEP 02 재무상담 신청

원하는 상담 신청하기

홈페이지 → '재무상담'

재무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원하는 상담 유형과 일정을 선택

신청 가능한 상담

찾아가는 재무상담 (서민금융진흥원)
※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 신청 가능

또는

금융권 재무상담 (은행 등)
※ 상담 시간은 상담사와 협의 후 확정

'온라인 재무상담'을 통해서도 재무상황·목표 등을 등록하면
재무관리 방향 등 1:1 상담 가능!

STEP 03 재무상담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형 재무상담

약 1시간 내외

상담내용

예산관리 / 재무 목표 수립 / 저축·투자 계획 / 금융상품 활용 / 신용관리 / 부채관리

※ 대면상담 가능 센터 및 지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재무문제 해결 등 **특화 상담 추가적으로 안내**

STEP 04 사후상담

사후상담(유선)

3~5주 후, 약 15분 내외

- 상담내용 실천 여부 확인
- 추가 궁금증 해소
- 재무상황 변화 점검

추가 상담 실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용·부채 문제 관리 및 해결방안 상담

복합지원 상담
금융·복지·고용 등 다양한 지원 연계

채무조정 사전상담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지원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카카오톡 등)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온라인 재무진단 ▸ 재무상담 ▸ 사후관리** 까지 전 과정 무료 지원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4번)

참고2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주요 QA**

1. 언제부터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가능 날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전용 웹페이지(www.kinfa.or.kr/fill4young)를 통해 오는 7월 6일 (월)부터 재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날짜는 신청일 기준 다음 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만 34세 청년입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만 35세가 되기 전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실제로 재무상담을 받는 날짜가 아닌,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신청한 7월 6일에는 만 34세에 해당하나 7월 7일부터 만 35세로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7월 6일까지 웹페이지에서 재무상담을 신청하셨다면 재무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추가로,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라도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라면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재무상담 신청 후 상담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신청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상담사(재무코치)가 배정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상담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금융권 재무상담'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 내외로 전담 상담사가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ㅇ 재무상담 신청 결과 및 상담 현황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재무상담 신청 후, 상담받기 전에 신청자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 '금융권 재무상담'의 경우, 사전에 발급받은 재무진단보고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신 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재무진단보고서가 없어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제도개선 예정(9월~)

5. 상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상담일시 확인을 위해 상담사가 연락드린 이후에는, 배정된 상담사를 통해 직접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정 변경이 아닌 재무상담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취소가 가능합니다.

6. 상담신청 시 일자만 선택 가능하고 시간은 선택할 수 없는데, 상담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담 시간은 상담일시 확정을 위해 상담사가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을 드려 조율할 예정입니다.

7.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계소득 관리를 위한 재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할 때 동행할 수 있나요?

▢ 네, 배우자와 함께 재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행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가계의 소득·지출·자산·부채 현황을 기준으로 재무진단을 진행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혜택이 궁금합니다. 재무상담을 받으면 바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 혹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재무상담을 완료한 경우 0.2%p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예시)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2029년 7월 27일이라면, 2029년 4월 30일까지 재무상담 완료 시 우대금리 적용

ㅇ 재무상담은 2026년 7월 16일(목)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일자 이후 재무상담을 완료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을 추후 가입하더라도 재무상담 이력이 인정되어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 찾아가는 재무상담, 금융권 재무상담, 온라인 재무상담 중 하나를 완료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9.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받기 위해 재무상담을 받는 경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 실행되기 전, 반드시 재무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무상담을 완료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청년미래이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온라인 재무진단 시 신용정보가 조회*됐다는 알림이 오는데, 어떤 정보가 조회된 건가요?

(예) 신용내역 알림 – 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서 OOO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 신용평가사(KCB)에서 제공하는 개인 연소득, 대출상환액, 월평균 카드 이용금액, 대출 건수 및 잔액, 개인 신용평점 등이 재무진단 과정에서 조회됩니다.

- 재무진단 시 입력되는 신용정보만 조회되며, 개인의 신용평가 또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재무진단을 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무정보 입력 단계마다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이전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무정보를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재무진단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온라인 재무진단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2.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신청했는데, 다른 금융권 재무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다른 재무상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재무상담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금융권 재무상담’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찾아가는 재무상담’ 또는 ‘온라인 재무상담’은 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금융권 재무상담’은 이용 불가합니다.

▢ 동일한 재무상담을 한 번 더 받고 싶으신 경우, 모든 상담 절차가 완료된 후 새롭게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권 재무상담과 찾아가는 재무상담의 상담 내용이 다른가요?

▢ 상담사 개인의 경력이나 소속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담 내용의 기본 체계는 동일합니다.

- ㅇ 두 상담 모두 재무진단보고서를 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 재무관리, 신용·부채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ㅇ 따라서 상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하는 상담방식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14.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 추가 상담이 궁금합니다. 재무상담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은 기존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거쳐 제공하고 있는 상담이기 때문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등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무상담 과정에서 재무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에게 해당 추가 상담 절차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재무문제 유형에 따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서금원), 채무조정 사전상담(신복위), 복합지원 상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상담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5.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휴가를 내기 어려워, 평일 낮 시간대에 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일 18시 이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및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 ㅇ 신청자의 일정에 맞춰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므로, 직장 재직 등으로 평일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